

[긴급!!]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초국적 제약회사 규탄 연좌 농성

2008년 3월 13일 오전 7:14

안녕하세요? 진보넷의 홍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가 분들께 급히 연대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어제 BMS와 로슈 앞에서 환자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월 14일 슈퍼 글리벡이라 불리는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글리벡은 노바티스사에서 판매하는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2002년 글리벡 투쟁 당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프라이셀은 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신약으로 BMS(브리스틀 마이어스 스쿼)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셀 가격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BMS사가 1정에 69,135원이라는 가격을 요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인하 요구를 했지만 BMS사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셀은 하루에 두번씩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약값이 14만원, 연간 5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요즘 금 한 돈 값이 10만원인데, 스프라이셀 하루 약값은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1년 약값 5천만원이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택 전세값이 다 날아가는 금액이지요. '살인적'이란 말은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비조정위원회에서는 약가 인하를 거부한 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한 직권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권으로 약의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권등재가 결정이 되어도 BMS가 스프라이셀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생산하는 로슈가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푸제온은 당시 1병당(푸제온은 주사제입니다) 4만원을 넘는 가격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국내에서 푸제온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한 PL분은 얼마 전 외국의 원조단체를 통해 푸제온을 구하기 까지 4년동안 기회감염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엄연히 한국 로슈가 있는데, 푸제온을 외국의 원조단체를 통해 구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약제로 등재된 푸제온을 필수약제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협상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백혈병 환자 분들과 PL(People living with HIV/AIDS) 분들이 3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쌀쌀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연좌농성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번 협상이 향후에 계속된 수많은 신약들의 약가 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에이즈 치료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신약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 제약회사 마음대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병이 걸린 것이 마치 죄인양, 금값보다 더 비싼 살인적인 가격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은 단지 환자들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지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가지고 돈 놀음을 하고, 낚시질을 해대는 제약회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련 기사

1. 인권오름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 말은 내게...'
: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755>
2. 참세상 '백혈병, 에이즈 환자, 치료제 있어도 그림의 떡'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787>
3. SBS 뉴스 추적 : <http://www.sbs.co.kr/new/tv/pursi/>